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이 은 주(동국대학교)

1. 연구목적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쉽게 줄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계도기간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신고를 접수했던 2005년 상반기에만 약 7천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매일경제, 2005, 10. 3). 이렇게 학교폭력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다른 문제점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인데(박창득, 2005), 15세 이하의 범 죄비율이 2001년 21. 2%에서 2002년 22.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유평수,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인이나 대책 등 실태파악을 위주로 조사하거나,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요인이나 환경적 변인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선애, 2003; 안재록, 2005; 유평수, 2005).

학교폭력의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수준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고 예방 및 향후 대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위한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가정과 학교가 상호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관한 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태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5학년·6학년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과 학부모들의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초등학생들 중에서 4학년·5학년·6학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문제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학교폭력 수준이 중·고등학생들과 유사하게 나타나 이후 폭력의 심각성이 더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수준을 조사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환경에서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에 포함된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폭력 인식, 학교폭력 상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문항이며, 아동용과 학부모용이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중 강북과 강남에서 임의로 2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년별로 2-3개 반을 임의로 선정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학부모용은 학생을 통해서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은 학부모 약 300명, 학생 약 350명이었으며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학부모 283명과 학생 323명이었다. 연구대상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5분 정도였으며, 설문조사 시기는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학부모들이 학생들보다 학교폭력을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집단따돌림이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지난해와 비교하여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학교폭력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폭력 문화와 대중매체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지적하였으나, 학생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격과 불량/폭력 조직의 문제 등 학교 내부적 요인을 지적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유형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 학부모들은 내성적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폭력씨클에 있는 학생들이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잘난척 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자 유형이고 힘센 학생들이 가해자 유형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학부모들은 폭력으로부터 자기보호를 하기 어려운 내성적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폭력적 성향이 있는 씨클에 가입한 특정 학생들이 가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잘난척을 하는 등 학교폭력의 피해 대상이 나쁜 이유와 있고 가해를 하는 학생들이 힘의 우월성으로 인해 주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보복이 두려워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고 가해자의 보복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폭력적 대중매체를, 학생들은 사회적 무관심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인 기관도 학부모들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학교로 응답하여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정부나 사회기관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에 가장 시급한 조치를 학교안과 학교 밖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수시 상담이 필요하고 학교 밖에서 학부모/경찰/교사의 합동 교외관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반면, 학생들은 정기적 설문조사와 경찰의 우범지역 순찰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 증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부적응아와 고립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